

## ‘청룡의 여인’ 김혜수 “올해가 마지막”

‘청룡의 여인’으로 불리는 김혜수가 올해를 끝으로 청룡영화상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소속사 호두엔터테인먼트는 김혜수가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는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김혜수가 청룡영화상 MC를 맡는 것은 올해가 30번째다. 그는 1993년 열린 제14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제19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청룡영화상의 MC 자리를 지켜왔다.

남자 MC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김혜수는 30여년을 청룡영화상과 함께해 ‘청룡의 여인’으로



▲ 제43회 청룡영화상 행사에 MC로 참석한 김혜수. 사진=뉴스1

불린다.

김혜수는 그간 깔끔한 진행 능력은 물론, 매회 화려한 드레스 패션을 선보이며 청룡영화상을 더욱 빛내 왔다. 김혜수가 시상식에서 동료 배우에게 건네는 축하 인사나 매끄러운 진행 멘트, 그가 입는 드레스 등도 매해 화제가 될 만큼 청룡영화상의 상징으로 통했다.

한편 김혜수는 제14회, 16회, 27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시상식 역대 최다 여우주연상 타이틀도 보유 중이다. 특히 만 23세에 받은 여우주연상은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으로, 27번째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제27회와 32회 청룡영화상에서는 인기스타상도 수상했다.

## ‘최악의 악’, 오리지널 시리즈 IMDb평점1위



▲ ‘최악의 악’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 9월 27일 공개된 한국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이 미국 비평 사이트 IMDb에서 올해 공개된 글로벌 OTT 오리지널 한국 시리즈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K-콘텐츠 열풍에 힘을 더했다.

지난 31일 IMDb에 따르면 ‘최악의 악’ (The Worst of Evil)의 최고 평점은 8.6점(전날 기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8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된 ‘무빙’의 최고 기록과 같은 점수다.

‘최악의 악’ 평가에는 총 1천700여명이 참여했다. 평가를 한 10명 중 9명은 높은 점수(8~10점)를 줬다. 점수 비율을 보면 10점이 62.4%, 9점 17.7%, 8점 9.9%를 차지했다.

평가한 이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쥐와 고양이 게임’ 같았다”, “캐릭터 서사가 탄탄해서 한 명 한 명에 공감이 됐다”, “독특하고 세련된 배경 음악이 납미 영화를 보는 듯하다” 등의 시청 평을 남겼다.

지난 25일 모든 회차를 공개한 ‘최악의 악’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경찰 박준모(지창욱)가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인 강남 연합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조직에 잠입수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 김 카다시안 출시 속옷 두고 갑론을박

할리우드 스타 겸 사업가 김 카다시안(43)이 출시한 속옷의 디자인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다시안이 론칭한 속옷 브랜드 ‘스킴스(SKIMS)’는 지난달 31일 신상품으로 인조 유두가 달린 패딩 푸시업 브라지어를 출시했다. 해당 속옷의 가격은 66달러이다.



▲ 김 카다시안(왼쪽)이 출시한 신제품 ‘속옷’ 홍보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출시에 앞서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 카다시안은 직접 해당 속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빙하는 녹고 있다”며 “난 과학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술을 이용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

미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스킴스 측은 이번 신상품 매출의 10%를 환경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1percentftp’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1	2	6	3	9	5	8	4	7
8	9	5	7	2	4	6	1	3
7	3	4	6	1	8	9	5	2
4	1	2	5	8	3	7	6	9
3	5	7	4	6	9	2	8	1
6	8	9	2	7	1	4	3	5
2	6	3	8	5	7	1	9	4
9	4	8	1	3	2	5	7	6
5	7	1	9	4	6	3	2	8

